‘두보, 윤선도 그리고 바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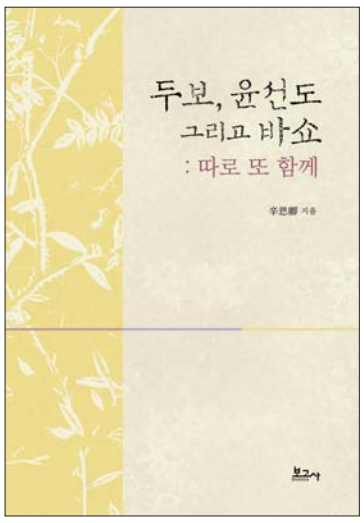
우석대 신은경 교수, 동아시아 삼국 대표 세 시인 문학 비교 관점서 살펴

우석대학교 신은경 교수(교양대학)가 ‘두보, 윤선도 그리고 바쇼 : 따로 또 함께’를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은 중국의 두보(杜甫·712~770)와 한국의 윤선도(尹善道·1587~1671), 일본의 마쓰오 바쇼(松尾芭蕉·1644~1694)의 삶과 문학 세계를 둘씩 셋씩 또 따로따로 한 자리에 놓고 읽어 보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 책은 비교문학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기존의 비교연구가 대개 2항간 비교의 방향을 취해 온 것과는 달리 두보·윤선도·바쇼의 시문을 대상으로 3항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신은경 교수는 “3자 비교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은 윤선도와 바쇼가 공통적으로 두보의 삶과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며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두보라고 하는 동일한 ‘씨앗’이 한국의 윤선도와 일본의 바쇼라고 하는 상이한 ‘토양’에 뿌려졌을 때 모양과 색깔이 다른 ‘꽃’을 피워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보, 윤선도 그리고 바쇼 : 따로 또 함께’

이어 신 교수는 “직접적 영향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두 항, 즉 윤선도와 바쇼의 경우는 ‘두보’라고 하는 제3항을 연결고리로 해 그로부터 받은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는 양상을 띤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시경이 동일한 원천 혹은 문학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가문학에 어떻게 달리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학의 비교연구에 있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신은경 교수는 서강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대학원과 서강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동경대와 하버드대, 하와이대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사설시조의 시학적 연구’, ‘고전시 다시 읽기’,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한국 고전시가 경계허물기’, ‘동아시아의 글쓰기 전략’, ‘서사적 글쓰기와 시가 운용’ 등이 있다. 이 중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과 ‘동아시아의 글쓰기 전략’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주관하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임주아 시인 초청 ‘제3회 G들끼리 수다’

전주작은도서관, 오늘 시민들과 수다 한마당 온·오프라인 진행

전주시 평화동 소재 전주작은도서관(관장 신이원)은 14일 저녁 7시 물결서사 대표인 임주아 시인을 초청해 ‘제3회 G들끼리 수다’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G들끼리 수다’의 ‘G’는 보통사람을 의미하는 General People의 약자로, 책의 일생에 동참하는 작가나 번역자, 출판업자, 서점주인, 독자 등을 초대해 책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G들끼리 수다’에서는 임주아 시인이 ‘익숙한 생각을 깨는 낯선 시 읽기’를 주제로 시민들과 수다 한마당을 연다. 강의 후에는 임주아 시인이 추천한 시집 10권 중 한 권을 선택해 읽은 뒤 시를 필사하거나 시 낭송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하는 체험활동도 이어진다.

‘G들끼리 수다’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전주작은도서관 밴드나 전주복지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작은도서관(070-7118-6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이원 관장은 “프로그램은 독자와 강사가 책이 만들어지고 읽히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책과 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민에게는 치유·문화예술계에는 위로를’

전북문화관광재단·한국소리문화의전당 협력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전시 개막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주관한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전시 개막식이 지난 9일 열렸다.

개막식은 전당 개관 20주년 특별전 ‘그날’에 참여한 작가들과 재단 및 전당 직원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재단과 전당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예술계 발전 및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연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자연 그대로가 주는 아름다움’이다.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이므로 디지털 자연의 개념을 도입해 도민을 위로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 전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S·O 전시실에서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월요일 및 추석 당일은 휴관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재단과 전당이 업무협약을 체결, 도민의 일상에 힘이 되고자 협력한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전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도민에게는 치유를, 문화예술계에는 위로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주관한 ‘뉴미디어 아트 숲’ 특별전시 개막식이 지난 9일 열렸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팀(063-230-741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미지의 세계, 최명희의 수필 나눔’ 야외 전시·낭독 영상

소설가 최명희의 수필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열린다.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야외 전시와 낭독 영상으로 소개하는 ‘미지의 세계, 최명희의 수필 나눔’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작고문인선양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최명희 작가의 수필 20편을 소재로 연구자·문학인·연극인·미술인·영상인이 힘을 모아 낭독 영상을 제작하고, 작품의 주요 부분을 갈무리해 전시하며 더 넓고 깊은 최명희의 문학 세계를 탐색하고 알리는 글 나눔 사업이다. 특히, QR코드로 전시 현장에서 낭독 작품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상징 문장을 책갈피로 제작해 1만 명의 시민에게 나눠준다.

전시는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월요일 휴관)며,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최명희문학관 마당에서 펼쳐진다. 낭독 영상은 전시 기간 내내 최명희문학관 유튜브 채널(최명희문학관 마음자리)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설 ‘혼불’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명희는 전 생애에 걸쳐 고르게 수필을 발표했다. 그의 수필에는 생활을 돌아보고 마음에 새긴 흔적과 자신의 존재에 관한 깊은 울림이 담겨 있다. 그것은 모국어에 관한 감동적인 헌사로 민족의 혼과 살아 있는 언어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고향의 정서가 진하게 어린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한다. 아끼고 아끼던 아름다운 기억을 망가뜨리는 근대화에 어지럼을 느끼고, 획일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천박함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찮고, 버려진 것에 안타까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게 모인 의식의 하나하나가 ‘혼불’로 이어졌다.

최기우 관장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담기면서 약간의 노력만 하면 70·80년대 문학인들의 수필과 콩트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최명희 작가뿐 아니라, 강석경·김채원·문정희·서영은·양귀자·오정희 등 더 많은 시인과 작가의 예전 글에 관한 탐구가 시작되고 시민들에게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9~1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진안역사박물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9~11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공방이나 문화예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진안의 청정자연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9월 29일에 ‘수제도장 만들기’ 10월 27일에 ‘라탄공예 체험’ 11월 24일에 ‘생화 꽃꽂이’가 마련되었으며, 오후 7시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예약 접수는 1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안군민 누구나 전화(063-430-8085)로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가인원은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여 접수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당일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문대장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다.

진안군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이 재미있고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명작 스페셜 12 정기연주회’ 공연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명작스페셜’ 열두번째 무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상임지휘자 백정현의 지휘아래,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음악콩쿠르’ 입상자이자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 중인 피아니스트 임효선이 함께한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러시아 20세기 대표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과 피아노협주곡 제2번, 그리고 그의 독특한 진수가 느껴지는 교향곡 9번이다.

지적이면서도 열정을 갖춘 피아니스트 임효선은 지난 2003년 비오티 국제콩쿠르에서 1위와 특별상, 청중상을 동시에 수상했으며, 2007년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입상, 2005년 비엔나 베토벤 국제 콩쿠르 입상 및 후기소나타 특별상을 받았다. 그 밖에 서울대 수석 입학 후 도미해 미국 커티스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이몰라음악원 마스터 수료, 독일하노버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경희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를 실시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 전주 기린미술관서 ‘시선의 사유’ 42인전 개최

군산대학교(총장 곽병선)가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 ‘시선의 사유’ 42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여류 화가들이 참여하는데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공예, 문인화, 디자인, 서예, 도예, 패션, 판화, 민화 등 11개의 다양한 장르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주로 전북여성미술인협회의 4대와 5대 임원진들을 중심으로 42인이 참여한다.

5대 회장으로 취임한 군산대 김정숙 교수는 “전북 여성 작가들의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학의 참여를 늘리고 전체 미술인들을 아우르는 정기전과 사랑의 기금마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임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전주 기린미술관에서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군산=남현봉 기자